2004년 제1회 전국 지회장회의 개최

회관건립기금 마련 및 협회 발전 방안 토의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의 전국 지회장회의가 6월 10일 서초동에 위치한 서리태에서 개최됐다. 이번 지회장회의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과 조병천 수석부회장, 박찬회 · 신동균 · 유헌식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전국 28개 지회의 지회장과 함께 협회 발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회관 건립기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업종분류, 위생교육 등 미래 지향적인 협회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회장들은 (사)대한제과협회의 제과회관이 위치한 서초동에서 열린 회의를 끝내고 제과회관을 둘러본 뒤 지회 차원의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김영모 회장은 "독립적인 제과회관이 생기면 중앙회가 각 지회지부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관건립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회장단 및 기술지도위원 조직 확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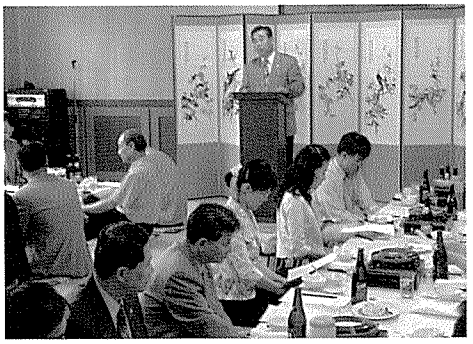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단 정원을 7명에서 10명, 기술지도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한편 성완석 부회장과 박승환 부회장이 각각 (주)파리크라상과 CJ(주)에서 퇴사함에 따라 부회장 위촉을 해지하고,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조상호 부사장과 CJ(주) 김흥연 상무를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한 부회장은 김옥중 (주)크라운베이커리 상무이사, 김유복 부산광역시지회 고문, 김성환 케익타운과자점 대표 등 3명이다.

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실연을 비롯해 제과 기술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기술지도위원으로 이성렬(마들렌과자점), 유인철(전주 풍년제과), 최윤석(루반도르), 이동우(뉴욕베이커리), 강창걸(레브드쉐프), 최문성(데메테르), 고화원(르 메이에르과자점), 정찬웅(블랑제리 르방), 최인호(케익하우스 리나), 김오균(광주 베비에르과자점) 씨 등이 새로 선정됐다.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연간후원업체 설명회 개최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6월 8일 충무로에 위치한 대림정에서 관련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관건립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 전반에 회관건립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영모 회장은 "업계 위상과 발전 도모를 위해 제과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회관건립사업의 진행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결의했다.

(사)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정일석 씨 임명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6월 1일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정일석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육군사관학교,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정일석 신임 사무총장은 군에서 지휘관 및 참모, 기획업무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월남종군기장 및 참전기장, 국난극복기장, 보국훈장 삼일장,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정일석 사무총장은 "협회의 사업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제과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제과인의 안녕과 협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광역시지회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는 지난 5월 20일 광주공원 내에 위치한 광주무진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광주광역시지회는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을 인정받은 데 이어 2004년도 위생교육 및 각종 세미나 등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양형일 국회의원, 북구 이호준 구청장, 광산구청 이영석 환경위생과장, 북구 임경운 위생과장, 제주도지회 박광만 지회장 등 내외빈 350명이 참석해 광주광역시지회의 도약을 기원했다.

이기남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회원 업소의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회로써 회원 결속을 단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남부지회(지회장 최용길)는 지난 4월 21일 대림역 부근에 위치한 대림웨딩홀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남부지회는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정받은 데 이어, 200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우수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중앙회장상을 비롯해 서울시회장협의회장상과 남부지회장 등 총 10명의 우수 회원들이 지회 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용길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신동균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회장들, 연관업체 인사,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지회
이사 및 과우회 단합대회 개최

동부지회(지회장 김종주)는 지난 5월 24일 서해안 안면도에서 이사 및 과우회 단합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합대회에는 동부지회 고문 겸 과우회장인 조병천 중앙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과우회원 10명과 동부지회 이사 20명 등 모두 30명이 참석해 동부지회의 도약을 다짐했다.

김종주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이사님과 과우회님께 늘 감사하다"며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 업소가 많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과 영업 활성화에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포부를 밝히고, 이사들과 과우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과우회장인 조병천 수석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동부지회 발전의 계기가 되고,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전했다.

대구 · 경북지회
기술 세미나 개최

대구 · 경북지회(지회장 이상태)는 지난 6월 9일 본회 세미나장에서 베이크플러스 주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탈리아 베이크마크社의 기술 프로모터 로렌조 다세코 씨의 실연으로 이탈리아 빵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치아바타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선물용 베네치아까지 12품목의 이탈리아 빵 비법을 대구 · 경북지역의 제과 기술인에게 전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통역은 김웅일 기능장이 맡아 세미나 진행을 도왔다.

파네토네같은 과자빵, 치아바타 같은 하드계열 빵, 참벨리나 같은 도넛 등 이탈리아 빵과 모양을 고스란히 재현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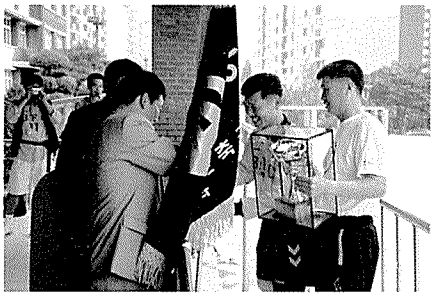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를 시종일관 진지하게 지켜본 지역 기술인들은 기술력을 한 단계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대구 · 경북지회와 베이크플러스에 고마운 뜻을 전했다.

안양시지부
신임 지부장 주재로 사무실 개소식 개최

안양시지부(지부장 남기석)는 지난 5월 25일 새롭게 단장한 지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에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된 남기석 지부장의 주재로 안양시지부 고문과 자문위원, 회원, 관련 업체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결속을 다졌다.

남기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단합과 안양시지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시 수과회 제3회 회장기 대회
안산시지부 축구 동호회 우승



경기도 수원시 수과회(회장 용춘식)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곡선초등학교에서 6주년 기념 제3회 수과회 회장기 대회를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원을 비롯해 안양, 부천, 군포 · 의왕, 안산의 제과인 축구대회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이덕주 고문, 안양시 남기석 지부장, 군포 · 의왕시 이관형 지부장, 안산시 홍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대회에서 안산시지부 축구 동호회 B.F.C가 우승컵을 차지했으며 부천시지부 축구 동호회는 준우승을 했다.

부천시지부
'새 소망의 집'에 선물용 롤 케이크 110상자 전달

부천시지부(지부장 조성영)는 지난 6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경기도 소사구 괴안동에 위치한 비영리 종교단체 '새소망의 집'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여해 선물용 롤 케이크 110상자를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새소망의 집은 부천시지부에서 매달 빵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전달해주는 곳. 이번 바자회는 소사구 관내 불우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공부방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꿈있는 아동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부족한 1억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렸다.

부천시 지부는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언제든지 앞장설 예정이다.

회원 위한 기술 · 정보 · 교육 · 고용창출 터전될 터

(사)대한제과협회 7월 1일 서초동 회관 시대 개막

(사)대한제과협회가 7월 1일 드디어 서초동 회관 시대를 맞았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새 회관에는 제과 기술 발전과 정보의 데이터화를 위해 앞으로 세미나실 · 연구실 · 역사박물관 · 자료실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중앙회 사무실 새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1-9 서전빌딩 4층 (우 137-865).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 제과회관건립 기금모금에 기술인 모임부터 학교 · 학원, 관련 업체까지 업계 전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원로 조승환 고문은 1천만 원을 쾌척하며 "제과 발전을 위한 터를 닦는데 제과인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6월 23일 현재까지 한푼 두푼 모아진 제과인의 정성은 1억5천162만5천 원. 제과회관 건립 기금모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사)대한제과협회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업계 각계각층 '뜻 모아' '정성 모아'

(사)대한제과협회 초대회장 조승환 고문 1천만 원 쾌척

한국 제과업계의 거목 조승환 고문이 지난 5월 21일 여석회 이선우 총무와 함께 중앙회 사무실을 방문해 김영모 회장에게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과회과기금으로 전달하며 협회가 업계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회관 건립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승환 고문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병(老兵)도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전국의 많은 제과인들이 단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는 바람에서 기금을 기탁했다"며 "제과회관에 빵과 과자로 만들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식품 연구소가 만들어져 우리나라 제과 기술을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조승환 고문은 1963년 (사)대한제과협회를 창설하고 초대부터 7대까지 12년 동안 협회장을 연임했으며 1968년 우리나라 제고업계의 대변지이자 월간 〈베이커리〉 전신인 〈과자회보〉를 창간했다.

1972년에는 제과기술교육기관으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고 20여 년 동안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수천 명의 제과 기술인을 양성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빵 · 과자 기술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수에 가까운 나이에 100여 년의 한국 제과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국빵과자문화사〉를 펴내 후손들에게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제과업계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한 조승환 고문은 현재도 제과업계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전 · 현직 제과인의 모임인 '여석회'의 고문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며 한국 제과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동맥

"대동맥(회장 오영수)은 최고의 기술인을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새 제과회관에 세미나실, 자료실 등이 생기면 우리 모임 회원들에게도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1 · 2학년 학생 모두는 예비 제과인으로서 업계 발전 없이 우리 발전도, 미래도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 모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웅호골프회

"웅호 골프회(회장 심옥섭)는 골프를 통해 우애를 다지는 중견 제과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위상을 대변할 제과회관이 생긴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으로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

"호텔 근무 제과인들의 모임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회장 정희태)는 (사)대한제과협회의 한 식구입니다. 협회가 새 회관으로 이전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바람입니다."

회관건립기금 후원 현황

중앙회	
후 원 자	금 액
김영모 회장	5,000만 원
조승환 고문	1,000만 원
조병천 수석부회장	500만 원
박찬회 부회장	500만 원
유헌식 부회장	200만 원
신동균 부회장	200만 원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100만 원
최인호 기술지도위원	100만 원
이남호 전(前) 사무총장	100만 원
중앙회 직원 및 지회 · 지부 사무국장	53만 원
유인철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함상훈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고화원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최문성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신현수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지회 · 지부	
후 원 자	금 액
남원시지부	52만 원
대구 · 경북지회 기술지도위원	50만 원
정읍시지부	38만 원
통영시지부	100만 원

제과 단체	
후 원 자	금 액
한국제과기능장협회	2,000만 원
한국제과기술연구협의회	500만 원
한울회	500만 원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	300만 원
웅호골프회	300만 원
대동맥	200만 원
수원제과인축구회	25만 원

■ **모금기간** : 2004년 5월 1일~2004년 9월 30일
■ **성금계좌** :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우리은행 : 050-109452-13-101 / 농협 : 360-01-046422
■ **문 의** :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TEL 02)2273-1830

※회관건립을 위해 성금을 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10만 원 이상의 성금에 대해서만 명단을 게재하고,
그 외에 성금 기탁자는 소속 단체명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과관련 업체	
후 원 자	금 액
(주)빵굼터 김서중 대표	500만 원
대두식품	500만 원
(주)빵굼터 사장단	300만 원
대흥기업	200만 원
현아종합포장	100만 원
산하기획인쇄	100만 원
(주)비앤씨월드	100만 원
(주)바깥세상 신현섭 대표	30만 원

제 과 점	
후 원 자	금 액
심옥섭과자점	100만 원
하이밀제과점	100만 원
루반도르제과점	100만 원
씨트론제과점	100만 원
르메이에르과자점 김연섭 대표	30만 원
안스베이커리	22만5천 원
전주 풍년제과 우성점	20만 원

학교 · 학원	
후 원 자	금 액
혜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1,2학년	213만 원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100만 원
한국관광대학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50만 원
혜전대학 서울교육장 03, 04학번	36만 원
수원여대 박현숙 조교	10만 원

개 인	
후 원 자	금 액
익명	300만 원
익명	100만 원
임형범	50만 원
김대창	30만 원
정석균	23만 원
채동현	10만 원
전일진	10만 원

총계	1억5천162만5천 원